

# 프로야구 NC, 이번주 우승 축포 예약...2위와5게임차

남은 8경기 3승만 거두면 정규시즌 우승 확정

홈이 아닌 원정에서 우승 확정지를 확률 높여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우승을 정조준한다. 이번 주에 우승 축포를 쏠 가능성이 높다.

KBO리그는 시즌 막판에도 치열한 순위 다툼으로 뜨겁다. 19일 현재 2위부터 5위까지 1.5게임 차로 붙어있는 만큼 그 끝을 예상하기 어렵다.

독야청청 선수를 지키고 있는 NC는 순위 경쟁을 다소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다.

NC는 지난 5월13일 1위에 오른 뒤 한 번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한때 맹추격을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독보적인 1위(80승4무52

패)를 지키고 있다. 2위 LG 트윈스에는 5게임차, 3위 KT 위즈와 4위 키움 히어로즈에는 5.5게임 차로 앞선다.

사실상 페넌트레이스 우승은 NC로 기울어졌다. 이제 관심은 NC의 우승이 언제 결정되는지에 쏠린다.

NC는 정규시즌 8경기만 남겨놓았다. 정상을 향한 '매직넘버'는 '3'이다.

남은 8경기에서 3승만 거두면 자력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되는 이번 주, NC는 4경기를 소화한다. 20~21일에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맞붙고, 23일에는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만난다. 24일에는 홈구장인 창원에서 LG를 상대한다. 홈이 아닌 원정에서 우승을 확정지를 확률도 높다.

같은 경기 수를 남겨둔 KT가 패하면 NC의 매직넘버도 하나 줄어든다.

NC가 광주에서 연이름 KIA에 모두 승리를 거두고, KT가 20일 LG전, 21일 삼성 라이온즈전 중 한 경기에서라도 패하면 NC의 매직넘버는 모두 소멸한다.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정상 등극이다.

NC는 2012년 창단해 2013년부터 1군 무대에 뛰어 들었다. 데뷔 첫 해부터 7위에 올랐던 NC는 1군 진입 두 번째 시즌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을야구에 참가하는 지력을 보여줬다.

2018시즌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썼지만, 하위권 생활은 길지 않았다. 지난해 5위로 시즌



을 마감하며 재도약하더니, 올해는 창단 첫 우승까지 예약하며 '강팀'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졌다.

김미희기자



## 김광현 A등급, 정교한 피칭 선보여

STL 선발진 중 김광현과 웨인라이트만 A등급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화려하게 마친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현지 매체에서 호평을 받았다.

휴스턴헤럴드는 19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의 2020시즌을 평가했다.

김광현에게는 'A' 등급을 매겼다.

매체는 김광현에 대해 "한국에서 온 좌완 투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2020년의 대부분을 보냈다. 신장 질환을 앓기도 했지만, 8경기에서 3승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2를 거뒀다. 정교한 피칭으로 피안타율 0.197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올 시즌을 앞두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에 계약,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마무리 투수로 개막을 맞이했던 김광현은 선발로 보직을 바꾸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의미가 있다.

휴스턴헤럴드는 김광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6이닝 이상을 소화한 것은 단 한 차례"라며 이닝 소화 능력을 짚은 뒤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시즌 선발로 나갔지만 3%이닝 3실점에 그쳤다"고 적었다.

김광현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2승제) 1차전에 선발로 나섰다. 3%이닝 3실점으로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온 바 있다.

한편, 매체는 세인트루이스 선발 중 김광현과 애덤 웨인라이트에게만 A등급을 줬다.

다코타 허드슨은 A-,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잭 플래허티는 C-로 평가했다. 개막 전까지 김광현과 5선발 경쟁을 펼치기도 했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는 F등급으로 혹평했다.

김민정기자

## '45초 만에 랭' 손흥민, 1골 1도움...득점 공동 선두

리그 7호골 · 시즌 8호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A매치 휴식기 이후 2주 만에 돌아와 경기 시작 45초 만에 골을 터뜨리는 등 1골 1도움을 올리며 매서운 공격력을 뽐냈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5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8호골이자 리그 7호골(2도움)로 도미니 칼버트 르윈(에버턴)과 리그 득점부분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도움도 하나 추가했다.

2015~2016시즌 EPL에 데뷔한 이후 통산 60번째 골(리그)이었다. 특히 경기 시작 45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토트넘은 3-0으로 앞서다가 경기 막판에 내리 3골을 헌납하며 3-3 무승부에 만족했다. 다 잡았던 승리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토트넘은 2승2무1패(승점 8)로 6위에 위치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친정으로 복귀한 가레스 베일이 교체 출전하면서 해리 케인, 베일,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KBS라인'도 첫 선을 보였다.

토트넘이 초반부터 날카로웠다. 킥오프하자마자 손흥민이 케인의 패스를 받아 페널



손흥민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리그 7호 골을 넣었고 이어 해리 케인의 골에 리그 2호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세 골을 허용하며 3-3으로 비겼다.

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 둘을 앞에 두고 각각적인 슛을 때려 선제골로 연결했다.

첫 골이 나오기까지 4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반 8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이 빛난 장면이다.

토트넘은 전반 16분 케인의 세 번째 골을 앞세워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토트넘이 전반에 3-0으로 크게 앞서다.

손흥민은 후반 35분 루카스 모우라로 교체되며 다음 경기를 대비했다.

후반 중반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후반 37분 파비안 알부에나에게 만회골을 허용했고, 3분 뒤에는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가 자책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3-2로 추격을 허용했고, 결국 후반 추가시간 마누엘 라시니에게 통탄의 동점골을 내주며 승점 3을 날렸다.

정승호기자

## 성공률 60% 최고 공격수는?...16살된 프로배구 진기록

레오, 2시즌 연속 1000득점...공격성공률 59.69% '압도'

프로배구가 지난 17일 개막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005년 프로 원년을 시작으로 17시즌째 역사를 맞이하면서 각종 기록이 쌓이고 있다.

프로배구는 지난 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리그를 마치지 못한 채 끝났고, 이번 시즌에도 무관중 경기로 시즌을 시작했다. 많은 배구팬 앞에서 달랠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오는 31일 경기부터 30%의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2005년부터 많은 선수들이 코트를 달궜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 이후 높이와 박진감이 더해졌다.

리그 초반에는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양강 체제가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OK금융그룹이 챔피언에 등극했다. 여자부는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등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우승팀이 거의 매년 바뀌고 있다. 시즌을 거듭할 수록 프로배구의 수 많은 기록(2020년 10월16일 기준)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했다.

득점 부문에서는 높이와 파워가 남다른 외

국인 선수들이 득세했다.

2014~2015시즌 삼성화재에서 뛰었던 레오는 무려 1282득점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올렸다.

레오는 그 다음 시즌에도 1084점을 올려 2시즌 연속 1000점을 올린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당시 삼성화재는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아 한 시즌 1000점을 넘긴 외국인 선수가 많았다.

레오는 2012~2013시즌에 59.69%의 공격성공률을 선보였는데,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레오는 타점 높은 공격력을 앞세워 삼성화재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의 초석이 됐다. 레오는 2012~2013, 2013~2014시즌 리그 MVP에도 올랐다.

삼성화재는 현재 약팀에 분류되고 있지만, 통산 8차례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안젤코, 레오, 가빈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

LIG에서 뛰었던 이경수는 2005시즌, 2005~2006시즌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여자부에서는 2011~2012시즌 KGC인삼공사에서 뛰었던 몬타뇨가 1076점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기록했다. 탄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높이와 파워가 인상적인 선수였다.

현대건설 센터 양효진은 2013~2014시즌 51.38%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여자부 최고 기록이다.

순도 높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선수는 파 다르였다. 파다르는 2017~2018, 2018~2019시즌 서브킹에 등극했다. 2018~2019시즌에는 무려 102개의 서브득점을 만들어냈고, 세트당 평균 0.77개를 기록했다. 낮게 깔리는 대포알 서브는 상대팀에게 경계의 대상이었다.

여자부 서브킹은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이 독보적이다. 문정원은 빠르고,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의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있다.

블로킹 부문에서는 현대캐피탈 신영석이 독보적이다.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신영석의 기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블로킹을 잡아낸 선수는 2006~2007시즌 117개를 잡아낸 '거미손' 방신봉(LIG)이다. 당시 방신봉은 세트당 1.093개의 블로킹을 잡아냈다.

여자부에서는 양효진이 으뜸이다. 양효진은 2009~2010시즌부터 줄곧 블로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에서 뛰다가 이번 시즌부터 한국전력에서 활약하는 박철우는 통산 5681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겼다.

뉴시스

## 필 미켈슨, 시니어 투어 또 우승

최종 3라운드 버디 8개 · 보기 1개 쳐 7언더파 65타 기록



필 미켈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미켈슨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버지니아 컨트리클럽(파 72)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 투어 도미니언 에너지 챔피언스 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1개를 쳐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199타를 친 미켈슨은 2위 마이크 웨어(캐나다·14언더파 202타)를 3타차로 제압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미켈슨은 지난 8월27일 챔피언스 투어 데뷔전인 찰스 슈와브 시리즈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한 후 두 번째 출전 대회에서도 정상에 섰다.

챔피언스 투어는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다.

미켈슨과 같이 데뷔한 최경주(50)는 챔피언스 투어에서 두 번째 톱10에 진입했다.

최경주는 이날 버디 7개, 보기 1개로 6타를 줄여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6위에 올랐다.

서선욱기자